

사순절에 주님의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을 생각하며...

지금 전 세계에는 역사상 유래가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 때문에 각 지역교회들은 너무나 잘되고 부흥하고 있는데, 나라와 민족은 갈수록 부패하고 있다. 많은 남편들은 아내를 멀리하고, 수많은 국가의 국민들은 배고픔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르완다에서는 13년 전 쯤에 후투족을 중심으로 민족 간에 서로 죽이는 인종 학살이 있었다. 700만 명이 3개월 동안에 싸우다가 100만 명이 죽고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르완다는 전체인구의 80%가 회심하는 놀라는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

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자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 교회 안에 있는 이혼율과 교회밖에 있는 이혼율이 별반 다르지 않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목사들의 절반이 이혼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교회는 세웠지만 국가를 제자 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와 세상의 제자가 되고 말았다.

바야흐로 봄이다. 청춘남녀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결혼하는 계절이다. 대부분의 결혼식을 보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신랑과 신부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무엇을

데 실패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교회도 점점 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에 종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만복에 근원이신 그 분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에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차도 주실 것이며, 좋은 집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만 강조하는 기복신앙을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참된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 그래서 찢어진 복음을 성경에 다시 넣어야 한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개인화시켰고, 교회를 중심으로한 이기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교회는 온전한 성경을 전함으로 국가에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교회를 제자화하고 세속화의 도구로 삼을 것이다. 전도는 단지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교회가 국가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당연히 이런 곳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케냐는 국민의 90%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타락한 나라이다. 기독교 가치관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세속화시킬 것이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된다. 바로 케냐가 그 대표적인 나라이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깊이 새기며 교회는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가져갈 영광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열정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강찬목사

로 템 나 무

예수님의 고통



그 신성 모독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막14:64-65)

이제껏 예수님의 고통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것이었다. ‘그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지.’ 이렇게 생각하기만 하였었다. 그런 예수님의 고통이 실제적으로 다가왔다. 예수님을 향해 날라 오는 그들의 주먹에 나도 모르게 얼굴을 돌리고 몸을 피하려고 하였다.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되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얼굴에 무언가를 찌운 채 주먹으로 쳤다. 선지자 노릇이나 하라며 놀렸다. 종들이 모욕적인 손놀림으로 쳤다.

편하고 쉬운 길로 가려고만 하였다. 되도록 고통을 겪지 않고 살고만 싶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했었다.

주님!
주님 곁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엄혜숙 기자

“대로우 밀러(Darrow Miller)는 말했다. ‘교회가 국가를 제자 삼지 않으면 국가가 교회를 제자 삼을 것이다.’”

났는가? 이 나라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당시 선교사들이 이 국민들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이다. 회심의 물결은 국가 전역에서 일어났고 많은 교회들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르완다는 국가적으로 제자화되지 못한 것이다. 즉, 교회가 국가를 제자화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80%가 넘는 이 국가에서 끔찍한 동족상잔이 벌어졌다.

우리는 민족과 국가의 구원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 교회의 과업은 국가를 제자 삼는 것이다. 대로우 밀러(Darrow Miller)는 “교회가 국가를 제자 삼지 않으면 국가가 교회를 제자 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회가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교회가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국가의 영향력을 받고 지배를 받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미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기독교 방송, 기독교 학교, 그리고 수많은 신학교가 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는 연간 150만명 이상의 태아가 낙태되고 있다. 이중 3분의 1이 교회

가지고 가야 할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고 들어오겠고”(계21:26)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그들이 속한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갈 것이다.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갈 선물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제는 동방박사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민족과 국가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는 나라와 민족의 영광을 가져갈 것인데, 우리는 어떤 특별한 영광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로 만든 국가와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고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위임하신 목적이기도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지난 100년간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잃은 채 살아왔다. 우리는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말하지 않고, 성경의 특정한 이야기를 강조했을 뿐이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민족을 제자화하는

담임목사 주일설교	2면
사순절을 지내며	3면
12단계 성경공부 시작	3면
중보기도팀 수련회 이희숙	4면



고난과 소망

창 45:5-8 발:29-30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소망을 심어야 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소망을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교회의 생명은 얼마나 진실된 소망을 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고난을 볼 줄 알아야 하고, 소망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을 주는 길입니다.

소망의 상징, 송레문

나라의 국보 1호였던, 송레문이, 남대문이, 불탔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뻔히 보는 가운데서 불탔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외적의 침입도 아니고, 자연 재해도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그것도 도저히 그런 일을 할 분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분이, 태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모두가 허탄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온 국민이 허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남대문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도 온 국민이 허탄해 합니까? 저는 백성들이 허탄해 하는 것이, 단순히 국보 1호 이거나, 훌륭한 문화재 때 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대문은 우리 민족의 소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란 속에서도, 호란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곳곳이 버티면서, 우리 모두에게 살아갈 용기를 준 소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파괴되지 않고 곳곳이 서 있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소망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허탄해하는 것은, 바로 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었기에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리 풍요하고 넉넉해도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나라도, 개인도, 소망이 있어야 살아가고, 소망이 있어야 고난도 이겨 나갑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소망의 상징이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고난의 민족,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은 참으로 고난의 민족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작은 이스라엘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거쳐 갔습니다. 이들은 수 천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고, 지금도 이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러한 소망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민족에게는 요셉이라는 소망의 상징이 있었기에 수 천년이 지난 오늘도, 어디에 가서도, 역경을 헤치고 뛰어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요셉의 삶은 한 마디로 역경을 이긴 삶이었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들을 다 겪었습니다. 사람으로서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도 겪었고, 남의 집 종이 되는 고난도 겪었고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되는 고난도 겪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들도 아니었고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어찌할 수 없는 고난들도 아니었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사람들로 인한 고난들이었습니다. 고난은 갈수록 깊어졌고 모두가 생명조차 유지하기 힘든 고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고난들을 이겼고 승리했습니다. 어려운 환경들을 피한 것도 아니고 더 좋은 환경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모든 환경을 이겼습니다.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경을 이겼다는 사실이 진정 위대한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어쩌면 수 천년이 지난 오늘 유대인들의 삶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편안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났던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평생 먹고도 남을 재물을 가졌는데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일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세상의 소망, 교회

저는 남대문 사건을 바라보며, 그리고 요셉의 삶을 돌아 보면서, 주님의 교회에 주어진,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드리고, 이 땅에 소망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힘이 되어 드리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이 살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가 있습니다. 소망을 키우는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하는 생명들이 소망을 갖고, 고난을 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다할 지라도, 세상에 소망을 주지 못하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가치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고, 자칫하면,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을 주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세상의 고난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의 고난에 동참해야 해야 하며 결코 고난을 감추거나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을 마치 악이거나 전혀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의 승리는, 결코 교회 안에서의 승리가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이라는 현실적인 고난 속에서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코 고난을 피하거나, 아니면 고난에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고난을 대면했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현실의 고난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감춘다면,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도 이 땅이 원하는 것은 소망임을 알아야 합니다. 혹 여러분들은 "고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제는 낯설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오늘의 우리들이 예전 사람들보다 고난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안타깝게도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날로 기술이 발달하고, 날로 풍성해지고, 날로 변창하는데도, 오히려 과거에는 없었던 걱정들이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는 낙관적일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너무나 비관적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오늘의 시대를 절망의 시대라고 규정합니다. 모두에게 절망감이 가득합니다. 사회의 문제에 대해 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바른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

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 공격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지 않느냐라는 절규입니다.

고난을 통한 소망

오늘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 초대 교회 성도들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들은 참으로 적은 무리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들이 처한 환경은 도저히 이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환경 앞에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자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가정에서 모인 작은 교회는 이들에게 도파쳐였습니까? 로마의 무력을 피해서, 이들끼리 모여서 천당의 신앙을 키워나갔던 곳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들은 세상에 대해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무관심한 자세를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이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어마 어마한 세력 속에 살면서도, 세상을 향해 냉소하지도 않았고, 세상 속에 빠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세상을 피하지도 않았습니 다. 도리어,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올바르게 볼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는 고통입니다. 결코 고난이 의미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피할 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결코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우주적인 고통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대신해서 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부활의 소망

고통을 받았지만,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기 보다는, 항상 소망을 가졌고, 이 소망으로 세상을 살렸습니다. 이들이 가졌던 소망은 고난을 통한 소망이었고, 이들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이들의 소망은 결코 세상을 떠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아울러 이들의 인내도 결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소망을 심어야 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소망을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교회의 생명은, 얼마나 진실된 소망을 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고난을 볼 줄 알아야 하고, 소망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을 주는 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아들여라고 말합니다.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고난이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고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능력입니다. 수난절기를 맞으면서, 주님의 삶에 담겨진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고난을 통한 부활의 소망을 깨닫고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사순절의 의미(사순절에 대하여)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렌트(Lent)는 고대 앵글로 색슨어 Lang에서 유래된 말로, 독일어의 Lenz와 함께 '봄'이란 뜻을 갖는 명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40일간의 기쁨일'이라는 뜻의 히랍어인 '테살 코스테'를 따라 사순절로 번역한다. 이는 부활 주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간을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 묵상하며 경건히 보내고자 하는 절기이다. 한편, 40이란 수는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으심, 40일간 시내산에서 모세의 금식,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생활, 예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40일등과 같이 성경에 여러 번 고난과 회개의 상징적 기간으로 등장한다. 특별히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날을 '재의 수요일', '성회수요일', '속죄일'이라 불린다. 사순절(四旬節)은 고난 주간을 포함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당하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이다. 또한 주님의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절제하는 시간이다.

함글함글 편집부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며

얼마 전, 등산을 좋아하는 남편을 따라 치악산에 다녀왔다. 눈 내린 겨울산은 같은 산이라도 운치가 다르다. 그날 따라 매서운 바람이 산 속을 온통 헤집고 다녔다. 앞서가는 남편을 쫓아가느라고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었다. 왕복 6시간. 힘든 코스였지만 정상에 오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험난한 산길을 힘들게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다. 산중턱에서는 맛볼 수 없는 아름다움의 극치다. 그래서 산행은 고난을 기꺼이 즐겨야 한다. 산 정상에는 추위에 못 이겨서 눈꽃이 곳곳하게 날을 세우고 가지마다 피어 있다. 맑고 푸른 겨울 하늘 아래, 흰 눈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그 황홀함에 어지럽다.

제일 추운 곳은 산 정상이다. 산 정상에는 성난 바람으로, 나무마다 가지를 기형처럼 뺨고 한쪽으로 몰려 자란다. 나무는 바람에 휘둘린 가지에 눈꽃을 고스란히 안고 겨울산을 지킨다. 눈꽃은 감탄 그 자체다. 자연의 세계도 고난을 당할수록 그 풍경이 아프도록 아름답다. 하물며 인생이라. 고난을 모르는 인생은 감동이 없고 메마르다. 인생도 고난 속에 꽃이 핀다. 힘든 산행을 통해 인생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고,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

미련한 이 인생도,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사람이 되길 기도한다.

최미옥 집사(5-18)

십자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길로

(사순절을 맞아 중보기도 팀장으로 보낸 사역을 생각하며)

창립 20주년을 맞는 주님의교회도 말씀을 회복하여 모든 성도들이 알곡이 되도록 힘쓰겠다는 박원호 담

임목사의 첫 날 말씀을 상기하면서 12단계 성경공부로 새 봄이 열리는 듯 조용한 흥분을 감출 수 없다.

지난 2년 동안 중보기도 팀장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무겁고 힘들었던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진리를 다시 깨달으며 약한 나 자신을 조금을 강하게 빚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고백한다. 거의 일년 동안을 담임목사의 공석과 중보기도 담당목사의 해외 유학 등으로 팀장을 맡으며 의욕만 앞서고 장기 결석자들에 대한 전화 설득 그리고 릴레이 기도가 채워지지 않아 안타까워했던 일, 집이 멀어서 기도시간이 늘 부족했던 일들 속에서 시행착오도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기도했다.

“기도의 용사 300명을 보내주세요”

주님의 교회교인이라면 채워주시리라 믿었다. 각 팀장들의 헌신으로 지금은 100여명이 넘는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다.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기도한 것을 생각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편안한 생활에 길들여져 나태한 기도 생활과 여러 세상살이에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거나 앓을까? 생각을 하며 늘 깨어 있기를 다짐하고는 한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따르며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의 무릎들이 밀알이 되고 불씨가 되어 주님의 교회가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김형기 권사

K의일기

초보신자 K

사순절을 맞이하여
드라마 금식 결심!



편성표
당분간 안녕

1일째

오늘 이산하는 날인데~



오망~
정조~
몽국영~

3일째



TV만
쳐다봐도
괴로와~

5일째

창세기..
마태복음



드라마 시간에
성경을 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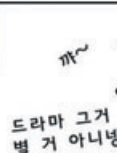
10일째

하나님..
드라마 안 보고
있어요..



기도하자~

사순절
지나고



왜지
하나님께
가까워진 듯한
이 기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는게 부듯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동참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외우! 무슨 공연이야!

12단계 성경공부가 시작되다



3월 5일 저녁 7시, 테헤란로에서 본교회로 진입하는 곳에 때 아닌 도로 혼잡으로 모든 성도들이 수요일 예배를 참석하면서 서로 놀랐다. 이미 예견된 일지만 이렇게(?)까지 뜨거운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차를 어디에 주차할까요?” “글쎄요 만차예요.” “운

동장이 젖어서 차를 주차할 수 없어요.” “예배에 늦겠는데요?” “조금 늦게 시작하도록 말씀드릴까요” 주차를 안내하는 집사님들이나 예배를 참석하려는 집사님들사이에서 일종의 흥분과 기대감으로 목소리가 힘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12단계 성경공부가 시작되는 첫날의 풍경이었다. 3월 5일부터 12단계 성경공부가 시작되는

데 박원호 담임목사가 모든 강의를 직접 챙겨 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의 성경공부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최상인 장로는 모든 강의에 필참할 것과 수료하기 위해서는 2번이상 결석하지 말 것과 모든 과정이 끝나기 위해서는 4년이 소요된다는 긴 성경공부 여정을 밝혔다. 또, 성경공부 준비팀이 준비한 출석카드에 호기심을 보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의 참석으로 모두가 흥분된 모습과 미래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었다.

목사님은 강의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척 사랑해서 하나 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16절로 설교하시면서 성경공부하는 목적은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알아 왔던

성격지식을 정리하고 종합할 필요가 있기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새로운 해석에 마음을 열라”고 부탁하시며 “장애인도 신학교에서 받아들여져야 하고 여성도 안수를 해도 되지 않느냐” 조심스럽게 반문하시며 이 공부가 끝났을 때에 본 교회 성도들의 일취월장하는 신앙의 성숙을 기대하기도 했다.

하태원기자

봉화영수원 중보기도팀 수련회

“주님의교회에는 주님의 피가 흐릅니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①



오늘 아침 갑자기 창문에 빗겨든 아침 햇살에 잔잔한 이불꽃무늬 하나하나가 눈물겹게 아름답다. 그 색조, 그 형상, 그 포즈, 분방하게 휘어진 가지 따라 점점이 흩어지듯 떨어져 내리는 작은 잎새들. 목을 길게 빼고, 두 손을 힘껏 뻗고, 무릎 한번 굽혔다가 땅을 차고 도약하면, 수직으로 마냥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를 것만 같다. 느닷없이 파동쳐오는 이 감동과 자유함의 물결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첫 사분기에 이르고 있는데도 아직 끝맺음을 못한 이러저러한 교회 사역의 실행계획, 신학기의 압박감, 오차 없이 진행되는 출판사의 일정, 윗세대 아랫세대 사이에 끼여 꼼짝없이 누지르는 일상의 무게들... 두 다리로 버티고 서있기만도 힘겨운 과제들을 내동い치고, 일박여정으로 경북 땅 봉화를 향해 출발한 것은 코앞에 신학기가 밀어닥치는 목요일, 2월 27일 아침 10시. 이호목사님이 올리는 출발전 기도소리에 귀를 모으자, 대형버스의 좌석을 가득 메운 40여명의 중보기도팀원들의 세상 염려는, 어느덧

방지일 목사님을 통해 주님이 주실 말씀을 사모하는 한마음으로 모아졌다.

신영숙 중보기도팀장을 비롯한 준비위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김밥과 간식으로 점심식사를 대신하며, 봉화 방지일목사기념관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경. 청량산의 한 자락에 자리한 기념관은 1, 2층 각 6개교실 정도의 소박한 재산초등학교의 폐교였다. 예배 겸 집회실로 마련된 1층의 교실로 들어가자 40여개의 방석이 따뜻한 바닥에 가지런히 줄맞추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부는 기도로 준비하고, 일부는 행장을 가다듬고, 주변 산책도 하고, 일꾼들은 저녁거리 손질도 하면서, 약 한 시간동안 신선한 청량산 대기를 피부로 느끼며 온몸 깊숙이 받아드렸다.

3시경에 봉화영수원의 안철준 목사님의 환영말씀과 인도로 첫모임이 시작되었다. 이호목사님은 시편 5편 11~1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방패와 같은 은혜로 호위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방패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인 중보기도팀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항상 즐거워하며, 섭리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웃과 국가사회와 피로 세우신 제단을 위한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또는 일인 골방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방패의 도구로서 사역을 다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교회의 예배시간 10분전에 도착하여 묵상기도로, 악한마귀와 사탄이 호시탐탐 못하도록 방패의 소임을 다할 것도 당부한다. 곧이어 98세의 방지일 목사님이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단장을 짊고 안목사님의 부축을 받으며 지극히 평온하고 단아한 모습으로 들어오신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원로목사님께 존경과 경탄의 예를 올렸다.

이렇게 시작된 元老목사님과의 만남은 『피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27일 오후와 저녁, 28일 새벽과 오전 이렇게 4회에 걸친 말씀선포로 점점 익어갔다. “말씀은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자세를 우선 바로 잡아주고 시작하신다. 1. 피흘려 주신 옷(창 3: 21), 2. 피의 길(창 4:4), 3. 핏소리(창 4:10), 4. 피의 표적(출 12:13) 등 4회에 걸친 말씀선포의 초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서서히 주님의교회 중보기도 사역의 성격으로 옮겨가는 듯하다. “주님의교회에는 주님의 피가 흐릅니다.”라는 노목사님의 단호한 말씀선포에 우선 전을했고, 그 의미는 집회가 다 끝나갈 무렵에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다음호에) 이희숙 권사(74)

교회 단신

안수집사회 총회



안수집사 총회가 2월 23일 태안 기름제거 작업 봉사 후 태안 현지에서 열렸다. 30여명의 안수집사들이 참여로 차가운 바람이 부는 바닷가에서 봉사의 기쁨을 맛보았다. 돌을 닦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안수집사로 연중 교회의 봉사와 모임에 본이 되고자 하였다.

안수집사회에서는 부정기적이고 한시적인 교회차원의 행사(무지개 축제와 전교인 수련회 행사)등을 위한 준비 및 실무위원으로 안수집사회 조직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건의 하였다.

1월 12일에는 신년 기도회를 가졌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귀한 것이니 특별하게 쓰이기를 바라며 옛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명을 가지자 했다. 기도회 후 방송작가 전영호 권사의 웃즐웃즐 사는 법 강의를 들으며 믿음 속에서 내 자신과 가족들과 같이 즐겁게 웃으며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는 강의를 들었다.

권승환 안수집사(2-15)

도서실 세미나



3월 2일 오후 4시에 도서실에서 봉사자 30여명과 봉사자역본부 본부장이 참석하여

2008년도 상반기 도서실 세미나를 가졌다.

김현덕장로의 기도로 시작하여 도서실 사역팀 팀장의 사회로 서로 안아주며 섬기는 화기에애한 친교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봉사자들 소개 2007년도의 도서실 운영보고가 있었다.

2008년도 도서실 운영의 중점사항으로는 연체 도서 없는 도서실을 만들기 위해 보다 친절하고 성실한 봉사를 다짐했다. 그러기 위해서 봉사자들을 1)도서구입부 2)도서등록부 3)도서정리부 4)연체도서관리부 5)생활부의 5개부서로 나누어 각부별로 부장과 부원을 선임하여 책임감 있는 봉사를 하도록 하였다. 또, 요일별 도서실 이용자수를 참작하여 주일에 봉사자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최정숙 팀장(5-4)

태안봉사
체험수기

돌을 닦으며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작년 12월에 교회에서 기름으로 오염된 태안반도에 기름제거 자원봉사를 갔다. 5명의 청각장애우들과 같이 갔었는데 도착을 하여보니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교우들과 같이 섞여 기름을 닦는데 마스크와 모자를 쓰니 누가 누군지 모르고 기름이 묻은 바위만 쳐다보며 열심히 돌을 닦았다.

땀아도 계속 기름이 나오니 마음속으로 속이 상하였다. 같이 간 교우들은 말을 하려면 마스크를 벗고 말을 하는데 우리들은 그냥 손짓으로 말을 하니 작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다.

돌을 닦으며 일터에서 그릇을 닦을 때와 다른 느낌을 받았다. 그릇은 다시 사용을 하려고 또 필요에 의해 닦지만 이 돌은 닦아도 닦아도 쉽게 닦이지도 않고 언제나 원래 상태로 돌아오나 하는 생각들, 이 많은 자원봉사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돌을 닦고 있을까?

나와 같은 장애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인간의 작은 실수가 큰 재앙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난다. 모처럼 봉사를 같이 하며 우리끼리(청각장애우) 걸레를 들고 작업을 하는 것 서로 도와주며 대화를 나누니 한편으로는 즐거운 추억도 되었다.

2월 23일에 또 다시 태안반도에 봉사를 간다하여 또 신청을 하고 갔다.

지난번에 갔던 곳과는 다른 곳이었는데 바닷바람이 심하게 불고 먼지가 많이 나고 너무 춥고 쌀쌀했다. 봉사자들이 열심히 불평도 없이 돌에 기름을 제거하는 모습이 마치 흰거미 떼처럼 보였다.

하루동안 피곤에 지쳤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른 교우들과 같이 봉사할 기회가 주어짐에 또 한번 감사를 드렸다.

심미수 (4-16, 믿음구역)

※지난 달 24일 강단 앞에 장애인용 경사로가 새로 설치되었다. 기존에는 계단으로만 강단에 올라갈 수 있게 되어, 몸이 불편한 일부 성도들은 강단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성도들은 강단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길가에교회 임직식》

길가에교회에 오는 부활주일(3월 23일 오후3시)에 임직예배를 여호수아홀에서 드립니다. 함께 오셔서 격려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자

장로취임: 한득현
장로임직: 김승기
명예장로추대: 이세춘 황기찬
집사취임: 장승수 박용운
집사임직: 오승현 유 범 김영훈
권사취임: 신길자 이승숙 김선례 한영미
권사임직: 최영자 김명숙 이인숙 김정수
명예권사추대: 구본영 이의덕

임직식

집례: 이인호목사
설교: 박원호목사(주님의교회)
안수위원: 박원호목사 외 목사&장로(길가에교회&주님의교회)
다과회: 임직식 후 여호수아홀